

순천형 지역완결 의료체계 내년 구축

상반기 필수의료공급체계 용역 완료...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 중증질환 골든타임 치료 주력...24시간 소아응급실 체계 확립

올해 의료공백 해소에 주력한 순천시가 내년에는 정부의 의료개혁정책에 맞춰 '순천형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원활한 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 하반기 목표로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도 설립할 계획이다.

순천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순천진료권 필수의료 공급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필수의료 공급체계와 재정지원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성기톨릭병원을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급성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질환의 골든타임 내 치료가 가능토록 하고, 예방·재활·고난이도 치료 등 포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엠블런스 시범지역 사업'을 내년까지 순천진료권 24개 구급

대와 1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광주지역 대학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464대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등 응급의료 환경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순천형 소아응급 의료체계 확립 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야간과 휴일에도 안정적인 소아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내년도도 지속 운영하며, 24시간 소아응급실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고위험 신생아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인큐베이터와 인공호흡기를 탑재한 신생아 전용 구급차를 도입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안전한 이송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그간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병원 관계자 간담회, 의료기관 자문회의, 공공보건으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및 중증 응급의료 중심의 필수의료 모델을 개발하고, 병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해 왔다.

또 순천시는 지역 의료정책 운영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을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설립하기로 했다.

의료지원재단은 필수 의료 정책 개발, 의료기관 지원, 의료 네트워크 확립 등 지역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4월까지 재단 설립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해 8월까지 조례와 정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재단이 설립되면 지역의료 접근성과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의료기관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산불 예방 영농 부산물 소각 지원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홍보

구례군이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 사업 및 불법소각 금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사진>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마련됐으며, 농업기술센터·산림과·환경과 등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군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산불 감시 인력과 함께 논가를 직접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펼치며 소각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군은 산림 연결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및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군은 주민들의 산불 예방 의식을 높이고, 공동체적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근구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 부산물 파쇄 및 수거 지원 사업은 주민들에게 불법 소각의 문제점을 인식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와 재난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크루즈에서 가면 쓰고 여수 밤바다 즐기세요

17일 '프라이빗 디너크루즈' 선상 클래식 공연·경품 추첨

'크루즈에서 가면 쓰고, 겨울 여수 밤바다 만끽하세요'

여수시가 야간관광 체험 프로그램인 '프라이빗 디너크루즈'를 오는 17일(오후 5시 30분) 운영한다.

선명 '이사부크루즈'에서 진행되는 '프라이빗 디너크루즈'는 가면 쓰고 참석해, 여수 밤바다를 만끽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관광상품이다.

이번 크루즈에 탑승한 참가자들에게는 특별한 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체험관광 모집 인원은 150명으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험생을 위한 특별 혜택으로 고등학교 3학년 본인과 보호자를 포함한 최대 3인의 10명은 별도 접수한다.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으로, 여수 밤바다를 마주하며 선상에서 즐기는 식사와 클래식 공연, 경품 추첨 등 풍성한 즐길 거리가 준비돼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관광체험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아름다운 밤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색적인 디너크루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지난 9일 조상대 곡성군수와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배기섭 오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한 후원자와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이 열렸다. <곡성군 제공>

"화재 악몽 씻을 새 집 선물 감사 합니다"

각계 도움으로 새 거주지 마련

곡성 60대 입주식서 감사의 눈물

"화재로 집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막막했는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식구가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집 마련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년 전 화재 피해로 주택을 잃은 곡성군 오곡면의 심모(64)씨가 지난 9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도움으로 마련한 새 보금자리의 입주식에서 도움을 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인 심 씨 가족은 지난해 12월 18일 잠을 자다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집이 모두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러한 딱한 사연을 전해 들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렇듯 어려운 가구에 집을 지어주는 사업인 '주택신

축 매칭그랜트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6600만원(후원금 3300만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3300만원)을 들여 새 집을 마련해 주었다. 지난 6월 착공해 4개월 만인 지난 10월말 준공했으며, 이날 조상대 곡성군수와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배기섭 오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한 후원자와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가졌다.

곡성군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새 집을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모아 모아-행복동지 신축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날 입주식을 갖게되기까지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주변의 많은 후원자들이 있어 가능했다. 주택 설계와 신고 처리는 곡성군 청렴 건축사 사무소에서 재능기부로 지원했으며, 오곡면 15개 지역사회단체가 준공 후 가구와 생필품 등을 후원하는 등 온정이 가득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보성읍 희망드림협회가 지난 10일 '2024. 사랑의 쌀 나누미' 캠페인으로 모은 쌀 129포를 취약계층 90곳에 전달했다. <보성군 제공>

보성읍 희망드림협 '사랑의 쌀 나누미' 기부

129포대 복지시설 등에 전달

보성군 보성읍 희망드림협회가 지난 10일 보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 사랑의 쌀 나누미(미)' 캠페인으로 모은 쌀 129포(1포당 20kg)를 관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등 90개소에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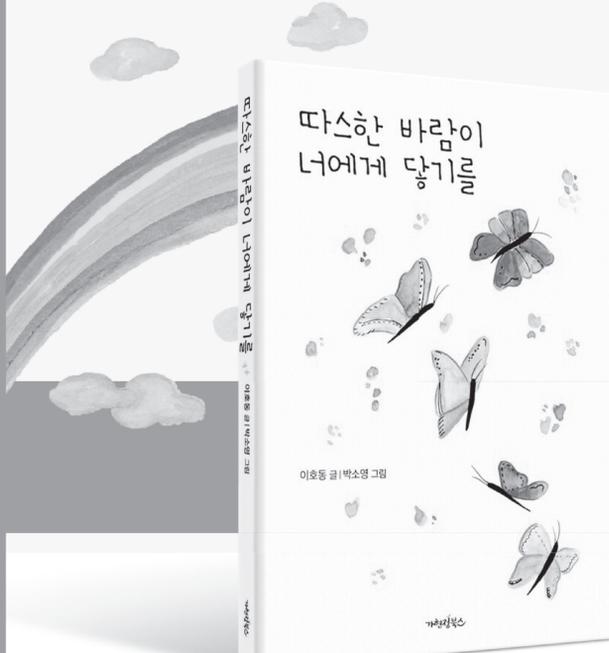
'2024 사랑의 쌀 나누미' 캠페인은 지난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진행됐으며, 지역 주민·기관·단체 등이 적극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부된 쌀 129포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을 통해 관내 경로당과 사회복지 시설·기관 및 취약계층 90개소에 전달했다.

보성읍 희망드림협회체 김재균 위원장은 "지역민들의 사랑 나눔으로 모금한 쌀을 보니 든든하다"며 "이웃을 돌보는 아름다운 동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성읍 희망드림협회가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보성읍장은 "올해 농가에 벼멸구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이웃 없는 보성읍을 만들기 위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 기관, 단체 등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나눔문화와 이웃사랑이 넘치는 보성읍이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